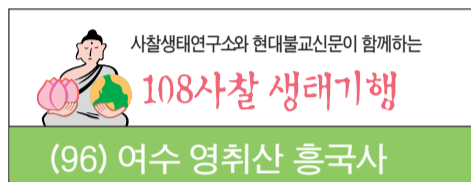




산괴불주머니, 예덕나무, 진박새, <월영=박희준> 큰멋쟁이나비, 진달래.

여천공단 공해로 자연도 사찰도 '울상'



무상(無常).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숲도 그 '법(法)'에 따라 예의 없이 천이(遷移)를 되풀이 한다. 재해나 남벌로 인한 민둥산에 먼저 초본류들이 들어와 저들의 세상을 만든다. 초지는 진달래와 같은 키 작은 관목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되고, 관목들 숲씨에게 영토를 내주어 소나무숲으로 변한다. 이윽고 소나무도 참나무류에 밀려나고, 그 숲은 다시 서어나무 등의 극상림으로 바뀌게 된다. 극상림은 다시 초지로 돌아가고... 숲은 이렇게 무시무종(無始無終)으로 천이된다.

해마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 사이, 여수 영취산의 진달래로 불바다를 이룬다. 이 진달래숲도 영취산의 진면목이 아니라 숲 천이의 한 단계일 뿐이다. 해마다 피고 지는 사이에 진달래 전성시대도 서서히 저물어, 훗날에 사람들은 이 산에서 숲내음을 맡으며 삼삼육육하게 되리니.

그 무상의 영취산 숲속에 흥국사(興國寺)가 자리하고 있다. 흥국사는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당대의 사회모순과 무질서에 대안이 되지 못했던 불교를 정혜결사(定慧結社)를 통해 개혁하고자 세워진 선찰이다. 흥국사로 가는 길은 그 어느 절보다 발걸음이 무겁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해지역 여천공단이 흥국사 들머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주민 이주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흥국사와 사하촌만 남기고 원료된 상태이다. 그 후 인근에 출촌공단을 새로 조성해 공장들이 들어와서 흥국사의 수평환경이 경악에 달린 실정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기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영향으로 지역 거주자들의 발암 위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흥국사 사하촌은 공단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공단 내 마지막 남은 마을 사람들은 거의가 관광관련 식당이나 숙박업을 한다. 공해로 인해 흥국사를 찾아오는 신도나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사하촌도 흥국사와 함께 존폐위기에 이르렀다. 절 입구 호반에 서면 영취산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해발 439m인 영취산을 가운데 두고 진례산(510m)과 호랑산(481m)이 어깨를 함께하고 있다. 아름다운 흥교와 일주문을 지나면 흥국사사적비가 우뚝하고, 이어져 영취교가 나타난다. 영취교 위아래 하상(河床)은 호박돌, 자갈,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갈수기라 수심은 평균 30cm 안팎이지만,

대웅전은 일찍이 하나의 반야용선(般若龍船)으로 전해온다. 대웅전 오른쪽 석축에 새겨진 계와 기단 끝에 새겨진 작은 거북이는 대웅전 주위가 바다임을 암시해준다. 이 반야용선을 이끄는 것이 돌계단 양쪽 소맷돌에 조각된 용들이다. 바다 한켠에 등대가 떠 있는데, 그것이 들거북 위에 세워진 흥국사 석등이다. 경내의 여기저기 봄꽃들이 보인다. 산괴불주머니, 현호색, 냉이꽃, 꽃다지, 광대나물, 제비꽃, 봄맞이꽃, 세잎양지꽃, 개불알풀... 산괴불주머니는 두해살이풀로, 습한 곳에 잘 자란다. 키가 50cm 가량인 줄기는 속이 비어 있고, 가지가 무성하며, 잎은 깎듯 갈라져 있다. 이른 봄에 꽃이 피는데, 생김새가 현호색을 많이 닮아있다. 다만,

묘를 것으로 보인다. 계류 건너 영선암 옛 터는 허물어진 돌담과 주위의 높은 동백나무 군락이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영선암 동백은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서둘러 요절을 한다. 주인 떠난 영선암 터는 새들의 도솔천이다. 계절이 일러서인지, 여름철새는 노랑할미새만 중흥천에서 한 쌍이 관찰되었을 뿐, 거리가 텅텅했다. 진박새는 박새보다 크기가 작다. 앞가슴에 세로줄이 없고, 꼬리가 짧아 통통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흰색 뺨과 날개의 가는 흰색 띠가 두드러져 보이고, 뒷통수에 난 검은 띠도 특징이다. 주로 활엽수숲에 살면서 여름에는 곤충을 잡아먹고, 겨울에는 씨앗이나 열매를 먹는다. 흥국사에서 봉우재까지, 전반부는 비교적 완만한 계곡길이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경사가 조금씩 급해진다. 봉우재 등산로는 등산객들이 생각 없이 등산 지팡이로 찔러서 점점 넓어지고 있다. 넓어진 만큼 산이 훼손되었다는 증거이다. 산행로는 좁을수록 친환경적이다. 흥국사와 영선암에 이르는 사면에서 현재 새 가꾸기가 진행 중이다.

산으로 가는 산행로가 이어져 있다. 봉우재에서 이어지는 정상부의 암봉들은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이나 알카리장석 화강암이다. 능선부를 따라 독립암괴가 나타나기도 하고, 흥국사 뒤로는 작은 규모의 암괴류(너털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도솔암으로 가는 길은 절반이 철도침묵 계단길이다. 도솔암은 온통 바위인 금석대 아래 자리하고 있다. 도솔암에서 진례산 정상까지는 가파른 바윗길이다. 진례산 정상에서 말안장처럼 완만한 안부로 내려서면 드넓은 억새평원이다. 봉우재에서 헬기장을 지나 영취산 정상으로 이어진 구간은 30~40년생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여수시에서 진달래 축제를 위해 수만 본의 진달래를 심었다. 그 과정에서 진달래 이외의 종들을 모두 제거하는 생태폭력이 행해되었다. 영취산의 진달래는 고도에 따라서 키가 다르다. 바람을 많이 받는 정상과 능선부의 군락지는 키가 아래쪽에 비해 작고, 잔가지가 많다. 439봉에서 능선을 타고 흥국사로 내려오는 산행로가 있다. 흥국사-봉우재 구간에 비해 왕래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호젓한 분위기이다. 흥국사 가까이 내려오면서 고라니와 너구리 배설물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야생 포유류는 대개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 직접 관찰한다는 것은 다람쥐류 빼고는 어려운 일이다. 흥국사 주변을 비롯해 영취산에 서식하는 포유동물로 너구리, 대륙족제비, 오소리, 삿, 고라니 등이 보고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흥국사 경내에 서식하는 시궁쥐, 청설모, 다람쥐가 관찰되었다. 사찰 경내에 사는 시궁쥐는 먹을 것을 찾아 논밭에서 경내로 들어온 것들이다. 시궁쥐는 다른 설치류에 비해 새끼를 많이 낳는 편이지만, 야생 고양이들이 늘어나면서 개체수가 예전처럼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어쩌면 영취산 포유류들도 앞날이 어둡기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여천공단이 밤낮없이 뿜어대는 공해 때문에 다양성과 함께 개체수도 점차 줄어들 것 이 분명해 보인다.

흥국사 신도·영취산 관광객 줄어 사하촌 존폐 위기 너구리·청설모·오소리 등 포유류 개체수 감소 우려도

1m에 가까운 곳도 있다. 중흥천의 우점종인 갈겨니가 그런 곳에 서식하고 있다. 이 지역은 다습기를 비롯해 뱀잠자리예벌레, 열새우, 하루살이, 강도래, 날도래 등의 수서곤충들이 관찰된다. 뱀잠자리예벌레는 돌 밑에 살다가 초여름에 수면 밖으로 나와서 흙을 파고 들어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한여름에 잠자리가 된다. 영취산의 양서류는 대부분 숲 가장자리의 나뭇지, 중흥천 수계와 주변 습지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다. 흥국사 주변의 산계곡리와 도동봉은 벌레 부화물 끝내고 어미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영취교를 건너면 비로소 흥국사 경내이다. 천왕문-봉황루-법왕문-대웅전이 3단 석축 위에 위계에 따라 일직선상에 자리하고 있다. 가람배치에서 다른 절과 다른 점은 대웅전 뒤 영역에 팔상전, 불조전, 응진당 등 비중 있는 전각들이 자리하고, 원통전이 외곽에 마치 별당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라색인 현호색과 달리 노란색이다. 이른 봄에 피는 꽃들은 겨우내 굶주림에 시달려온 봄나비들에게 꿀을 제공하는 생명의 은인기도 같다. 큰멋쟁이나비는 날개 편 길이가 6cm 가량 되는 중간 크기의 나비이다. 주황색 양쪽 앞날개 가장자리에 흑색 무늬가 있어서 매우 아름답다. 보호색이 강해서 날개를 접고 있으면 날개를 펼 때의 색깔과 무늬가 오간 데 없이 사라진다. 흥국사는 좌우로 두 계곡을 끼고 있다. 하나는 영취산과 진례산 사이에서 내려오는 영선암 계곡이다. 다른 한 줄기는 영취산과 호랑산 사이에서 내려오는 정수암 계곡이다. 그러나 영선암과 정수암은 오래 전에 화재로 폐사되고 지금 도솔암만 산중턱에 남아있다. 도솔암 가는 길은 영선암 계곡을 끼고 40여분 거리에 있는 봉우재에서 갈라진다. 3월말, 진달래가 산 아래쪽부터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했다. 꽃샘추위만 없다면 1주일이면 봉우재와 영취산 일대를 붉게 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개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역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기도의 비밀"은 불생원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기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정박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절망하는 사람이 더 절망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 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비밀의 열쇠"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이미지가 품기만 해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불러온다. 욕망은 원하는 것들을 연결해주고, 기도는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 책에는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끌어당김법칙"을 공개하오니 기도 성취를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재의 신간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책이오시는길: 4호선 김포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정자는 버스 - 웰리머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경봉 큰스님 친필 소장 하실 분

규격 > 123cm x 66cm

표구 하지 않은 원본
011-808-7356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새 인연자를 찾습니다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넘칩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